

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첫 발... '뉴 효성' 시너지 이끈다

효성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기존 ㈜효성 조현준 회장 이끌고 신설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맡아 '부진' 효성화학 실적개선 급선무

2개의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한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 경영 체제가 첫발을 내디딘다. 형제 경영을 통해 승계 구도 안정화를 꾀하고 '뉴 효성'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 지주사를 설립하고 2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앞서 효성그룹은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지주사인 ㈜효성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앤에스로 구성되며 조현준 회장이 이끈다. 신설 지주사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그룹 본사 전경

/효성

말으며 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효성홀딩스 USA·효성도요타 등을 담당한다.

특히 효성그룹은 이번 체제 재편으로 사업 분야별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등 '뉴 효성'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뉴 효성은 조 회장,

조 부회장이 각자 주력 사업에 집중하며 사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조 회장은 효성화학 실적개선에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효성화학은 그룹의 '천덕꾸러기'로 불리며, 지난 2022년 3367억원, 2023년 18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특히 지난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3485.8%에 달한다.

아울러 효성그룹은 미래 신사업으로 바이오 원료, 수소 등 신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그룹은 올해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효성첨단소재는 수소연료탱크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를 만들어 생산부터 충전, 연료탱크까지 이어지는 그룹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HS효성의 안착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스파넥스를 이을 미래 소재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타이어 코드 제품을 비롯해 수소에너지용 탄소 섬유, 방산 소재인 아라미드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HS효성 공식 출범 행사에서 회사의 성장 키워드로 '가치 경영'을 내걸기도 했다. HS효성 주주와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두 형제의 독립 경영 체제가 꾸러져도 그룹 내 사업적 시너지는 창출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업 분할 전에도 조 회장이 섬유·화학 사업을, 조 부회장이 첨단소재 부문을 중점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이다.

독립 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효성그룹은 독립 경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신속 추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검토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보이콧 피싱 근절방안 등 중점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의 대상자를 증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불법 스펀의 증가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뉴스1

논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

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경영예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한대출대상도 증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2025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평가원, 수능 시행 세부계획 "EBS 연계율 50% 수준 출제 문·이과 통합수능 유지하기로"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초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

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일 방침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문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은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의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 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수능시험은 11월 14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이현진 기자 hj@

반도체위원회 신설... 광노정 위원장 보임

>> 1면 '최태원, 5년간 103조...'서 계속

최 회장은 SK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AI 못지 않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CEO들에게 당부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에게 '질적 성장' 등 선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내서 시장에 기대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 등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가올 큰 기회에 대비해 성장의 밑거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투자 활동은 SK 기업가치 제고 외에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